

“방사광가속기 적정성·인프라 풍부 호남이 최적”

유치위, 사회적 거리두기 속 기업·전문가에 당위성 홍보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출범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전문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에 호남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호남이 부지의 규모·안전 등 적정성, 한전공대 등과의 시너지 효과, 지역균형발전,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향상 등의 이유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

장을 비롯한 관련 학계 전문가 200여명은 최근 출범식을 갖고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 당위성을 기업, 전문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권의 연원과 역량을 결집해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를 호남권에 반드시 유치해 미래 첨단산업의 주축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전북에서 시작해 광주, 전남, 경남까지 아우르는 L자형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호남이 AI클러스터,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나주가 신산업과 첨단과학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이기학 전 원광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장, 박기영 순천대학원장, 김도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원장, 범희승 아시아핵의학협력회의 의장, 한국과총 최용국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등 유치위원들도 각자의 인맥을 동원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 유치 서명운동 참여, 관련 기업 협약 체결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호남권의 미래발전과 성

장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호남권 3개 시도의회 의장은 “인류의 새로운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호남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가 안정적인 기반, 넓은 부지, AI 인프라, 풍부한 인적 자원, 한전공대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돼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사회서비스원’ 7월 설립 박차

지역 돌봄 서비스 역할
임원 공개 모집인 심의 의결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을 목표로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원 선정 방법, 절차, 공개모집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모 예정 직위는 원장(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9명, 비상임 감사 1명 등 총 11명으로 16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모 내용이 공고된다. 자격요건,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임원이 선임되면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 후 법인 등기를 마치고, 5~6월 직원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대표이사)은 사회

복지·경영·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자격을 충족한 자,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감사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면 된다. 광주시는 2018년 9월부터 테스코프스를 운영해 설립 필요성과 대상 시설 등을 검토했다. 지난 2월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최근 설립·운영조례를 공포하고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마쳤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할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이다. 또 시급성과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과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광주복지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촘촘하고 포용적인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세월호 6주기 추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을 찾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헌화하고 있다.

목포 바다분수·여수 낭만포차 등 야간관광 100선에

관광공사 선정...전남 13곳

목포 명물인 춤추는 바다분수, 갯바위 해상보행교, 해상케이블카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여수에서도 낭만포차와 여수 해상케이블카, 여수밤바다&낭만 버스킹 등 3곳이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전문가 추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전국 100곳의 야간관광 명소를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목포 3곳과 여수 3곳을 포함해 13곳이 선정됐다. 목포에서 야간관광 명소로 선정된 춤추는 바다분수는 세계 최초 초대형 부유식 음악분수다. 물과 빛, 음악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바다분수는 높이 13.5m, 최대 분사 높이 70m다.

갯바위 해상보행교도 색다른 야경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샷갯을 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갯바위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4월 27일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받았다. 다도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의 압도적인 탑승거리와 볼거리로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의 낭만포차와 여수밤바다&낭만 버스킹은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거닐며 음악과 공연,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하늘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올해 2월에는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개통돼 야간 경관조명을 선보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5·18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본격화

이 시장 “조례안 통과 긴밀 소통을”
시의회, 의원 의견 수렴 처리 논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을 다시 논의한다. 일단 시와 시의회 모두 지방 공휴일 지정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총선 이후 지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5·18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1년에 단 한 번, 5월 18일만 큼은 광주 시민 모두가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루로 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간담회 등 형식으로 의원 간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회기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고, 정무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가 통과하면 전국에서 제주 4·3 항쟁 기념일에 이어 지자체가 지정하는 두 번째 공휴일이 된다. 다만 40주년을 맞는 올해 5·18 기념일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이날 중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휴무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도 걸림

돌이다. 조례안대로라면 광주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무원에게만 휴무일이 적용되고, 민간 기업은 노사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일각에서 자치 공무원들의 휴일로 그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18일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공휴일 지정 추진과 함께 온라인 등을 통한 5·18 40주년 기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행사와 작품을 기획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적극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실태 점검

17일~다음달 12일까지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광주시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501.14㎢의 행정구역 면적 중 244.38㎢(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

속 및 조치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